잿더미위에 꽂은 버팀대

■ 체험수기/제12회 불조심·여성수필·수기현상모집 가작

성 신 경

"승희야, 현관 청소좀 해라"
"네, 엄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으로 뛰어간 막내딸 승희가 현관 청소를 한다. 신통하게 청소도 잘한다 생각하며 흐뭇하게 저녁 설겆이를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엄마! 나 이제 이 빨간구두 꼴도 보기싫어. 제발 새 구두 좀 사줘"

마침 기다렸다는 듯 큰딸 아이도 제방에서 뛰어나오며 제 동생을 부추겼다.

"우리 학교에서 구두 한켤레와 운동화가 한켤레 뿐인 아이는 나와 승희밖에 없을거야. 엄마 구두 사줘 응—"

아이들은 치마를 붙잡고 뱅뱅 돌았다.

"아직도 멀쩡한데 왜 그러니!"

한마디 해주고는 계속 하던 일을 하니까 아이들은 저희들 아빠를 졸랐다. 신문을 읽던 그이는 아이들 보고 현관에 있는 신발을 모두 가져 오라고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구두를 사주려고 하나 보다고 깡총깡총 뛰며 저희들 신과 우리들 구두를 힘겹게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가니 그이는 신문 몇장을 넓게 펴더니 그위에 신발들을 모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는 아이들 보고 아버지와 엄마의 구두와 자기들 신발을 살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는듯 신발을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이윽고,

"에이! 아빠 구두는 거지신발 같애. 막 꿰맸잖아. 아빠, 이렇게 낡을 때까지 구두를 신는 이유가 뭐예요. 아빤 사장님이잖아요."

"준희 승희야, 엄마 구두도 마찬가지란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구두 한켤레조차도 아껴 신으며 구두쇠 노릇을 하는 이유를 가르쳐줄까?"

그이는 장농위에 곱게 올려 놓은 검은 가방을 꺼냈다. 그곳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아이들에게 한번도 보여 주지 않았던 보험통장들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지나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며 보험증서들을 보여주는 그이의 자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은 어느듯 십삼년 세월의 구비를 성큼 건너뛰어 아카시아 향기 휘날리는 시골 중학교 교정에 서 있다.

나는 스물 세살때 그이를 만났다. 미술대학을 갓 졸업하고 시골중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공무차 들렀던 그는 헌병장교였다. 우연히 만난 우리는 천생연분인듯 금방 친해졌고 육개월 열애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서로가 외로운 처지인 것이 둘을 강하게 이끄는 힘이 되었다. 세살때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열여섯살때는 아버지마저 돌아 가시어 오직 혼자의 힘으로 살아온 그이는 남달리 생활력이 강했다.

결혼하자마자 그이는 제대를 하고 나는 학교를 그만 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실내장식업이었다. 내가 다자인한 그림을 원단에 찍어 커튼지를 직접 생산하여 고급 주택들을 장식해 주었다. 때마침 부동산붐을 타고 우리의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듯 번창해갔다. 방배동에 전시장을 가졌는데 그 근방 고급

주택은 우리의 손으로 장식한 집이 무수히 많았다. 우리 두 사람은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돈을 모았다. 그이는 누구보다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자기의 아버님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었지만 냉정한 계모 밑에서 고아보다 더한 천대를 받으며 자란 소년 시절을 서러워하며 한을 품고 있었다. 그렇기에 오직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도 그의 생각에 발맞추어 열심히 도왔다. 갓난 아이를 업고 먼곳으로 견적을 나가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쁠땐 커튼시공을 하기도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빠서 앉을 틈도 없었다. 밤에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는 꾸벅 꾸벅 졸았고, 집에 와서는 그날 수금한 돈을 세고 또 세고는 했다.

그렇게 지낸 4년만에 우리는 안양에 24평짜리 맨션아파트와 방배동에 새 전시장을 하나 더 마련하게 되었다. 결혼 몇년만에 사업도 번창하고 집도 사고보니 아무것도 부러울게 없고 겁날 일이 없었다. 우리는 가진 돈을 톡톡 털어 새집을 장식하고 가구를 샀다. 새 전시장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힌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두 살려 최고급 실내장식 전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 그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터졌다. 새로 개업한 전시장에 방하나를 만들어 직원들을 자취시킨게 문제였다.

정전이된 날 밤이었다. 촛불을 켜놓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잠결에 걷어찬 촛불이 이불에 옮겨 붙어 삽시간에 전시장으로 번져갔다. 창문으로 사람들은 뛰어나왔지만 전시장은 속수무책이었다. 우리가 안양에서 급히 달려왔을 때 소방관들은 굳게 잠긴 샷다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작은 창으로 호스를 넣고 물을 뿌리고 있었다. 벌겋게 단 샷다는 금방 녹아 내릴 것만 같았다. 카페트며 벽지며 커튼이 모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데다 유독가스도 무서워 사람들은 감히 접근도 못하고 샷다 밑으로 기어나오는 불길만 바라보며 발만 구르고 있었다. 불과 한시간 반 동안에 모든게 다 타버렸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단숨에 달리는 단거리 주자처럼 남보다 조금 빨리 달렸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작은 성공을 하느님은 질투를 하신걸까. 무릎까지 빠지는 잿물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넋을 잃었다.

그렇게 전시장을 불태우고 나니 우리에겐 엄청난 뒷치닥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 산 아파트엔 잔금 1백4십만원도 못내고 입주를 한터였고 전시장에 들어간 샘플이나 장식품들에 대한 외상값, 수많은 원단값, 빚장이들이 떼뭉쳐 몰려들었다. 우리는 처음 개업했던 전시장마저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수중엔 무일푼이 되었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마저 팔리지도 않았다. 1980년 가을이었다. 시국도 불안하고 오일파동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이 어둡던 때였다. 부동산 경기는 찬물을 끼얹은듯 침체되었다. 우리는 새로 애써 산 집을 남에게 전세를 주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삼백만원에 전세를 주고 나오며 못갚았던 잔금을 갚고 등기세와 그밖의 경비를 제하니 우리

손에는 1백만원이 쥐어졌다.

우리는 갖고 있던 가구를 모두 정리하고 보따리 몇개만 싸들고 방배동 산동네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3만원짜리 단칸방에 세들어 살게 되었다. 산아래 방배본동에는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부자들이 살고 우리는 그곳의 집들을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돈을 벌었는데 같은 동네 산꼭대기 달동네에 쫓기듯 찾아들고보니 모든게 허망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1년을 넘게 실업자로 지냈다. 그이는 예전에 앓던 병이 도졌고 나는 둘째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였다. 드디어 우리 수중에 있던 1백만원이 봄눈녹듯 사라져갔다. 패물도 모두 팔아버렸다. 드디어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그이는 아픈 몸을 끌고 일어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보조키를 달아주는 일을 했다. 드릴로 쇠문을 뚫고 보조키를 달때 무수히 튀어 오르는 쇳가루들은 그의 약한 기관지를 더욱 상하게 했다. 어느날 초죽음이 되어 귀가한 그는 나의 손에 애써 번 6만원을 쥐어주며 눈물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중동으로 떠나겠어"

나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결혼후 외박 한번 없었던 그였다. 언제나 우린 함께 있었고 화재를 당한 후 그 고통스런 병과 실업자 생활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은 우리였다.

"죽어도 같이 죽어요. 난 헤어져서 못살아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고학하며 영문과 졸업한 보람이 있더구만. 대림에서 해외파견 자재과 직원을 뽑는데 회화실력 때문에 합격했어. 난 운이 좋은거야"

그는 중동으로 가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혼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나의 눈물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그이는 신체검사를 겨우 합격하여 몇달후 사우디 아라비아로 떠났다. 1981년 4월이었다.

그후 우리는 꼬박 4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이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피땀흘리며 일하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친척도 없이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다시 직장에 나갔다. 그이의 도움으로 중학교 미술교사 3년만에 미술학원도 경영할 수 있었고 남에게 전세주었던 아파트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하겠는가.

한순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언제나 눈앞을 어른거리는게 가장 괴로웠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서로에게 다짐을 주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우리는 1985년 4월4일에 다시 만났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우리는 실내장식업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영동 사거리에 좋은 전시장을 다시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피땀어린 인내와 의지로 되찾은 그곳에 튼튼한 버팀대 하나를 깊게 박았다. 바로 화재보험가입이다. 지금도 때때로 옛일이 회상될 때마다 '아, 그때 화재보험 하나만 들었어도…'라는 가슴저린 후회가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기억에도 선명한 그 무섭고 허망한 잿더미위에 튼튼한 버팀대를 세워놓은 것이다.

그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큰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한다.

"에이! 아빠 그렇지만 생명보험하고 화재보험은 기분 나빠. 그런 무서운 일은 안 일어나면 좋을텐데…그렇지만 불이 안나면 억울하잖아. 괜히 보험금만 물고"

아이의 말에 그이는 껄껄 웃으며 귀여운 코를 잡아당긴다.

"요! 깍쟁이 아가씨야. 열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한다는 말도 있잖아. 우리가 내는 보험금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대도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큰 도움을 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때 우리 딸들도 엄마 아빠처럼 구두쇠가 되어 보지 않을래"

그이가 잡아 흔드는 코를 싸잡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일어나 구두를 치웠다. 현관으로 구두를 옮긴 큰 아이가 나와 그이의 구두를 슬며시 내려 놓더니 구두솔로 윤나게 닦기 시작했다. 막내딸 승희는 제 운동화와 언니 것을 들고 목욕탕으로 달려들어 가더니 큰 소리로 외친다.

"언니, 나 운동화 빤다. 언니 것도 빨아줄께!"